“불교복지관 40개→1100개, 여러분 노고 덕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거행

전국 불교계 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비나눔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3년 한해동안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주관하는 2013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2월 6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복지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국비구니 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및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이 참석했고,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법각 스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민주당),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류지영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1부 자비나눔기념대법회와 2부 불교사회복지포럼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국 1100여 개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복지현장에서 활약한 자비나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공헌한 일산농인종합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동준 스님,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 김동현 늘기쁜마을 사무국장, 이정희 성동구연꽃어린이집 원감, 이정숙 보람어린이집 원장, 윤은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물리치료사, 홍순원 사단법인 자비봉사회장, 공경혜 정애원 자원봉사자, 이문희 조계종자원봉사단 봉사자, 작은보시큰자비(사회복지법인 봉은), 최경구 경기대 명예교수, 김미숙 보건복지부 불자회 총무, 신흥사복지재단 등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엠씨에프 대표이사 성공 스님,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수 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박창재 부장,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왕정임 자원봉사자,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전화 전영자 자원봉사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윤문자 자원봉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지완 스님과 거제시재가불자연합회 김만성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15회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포교원장 지원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등 내빈들이 축하떡을 절단하는 모습(사진 왼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가운데)이 불교사회복지발전공헌부문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윤은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물리치료사, 이정희 성동구연꽃어린이집 원감, 이정숙 보람어린이집 원장, 김동현 늘기쁜마을 사무국장에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시상식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1990년대 초 40여 곳에 불과하던 불교복지시설이 이제는 11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 복지시설이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자비로운 손길을 전하고 있고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불교복지 실천가 여러분들이 보다 정진해 주길 당부드리며 나눔은 곧 수행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에서는 불자 국악인 김성녀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하나은행과 연계해 추진해 온 금융상품인 ‘자비나눔 통장(행복나눔적금)’ 출시를 선보였다.

2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불교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방안을 모색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행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눔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초기불교부터 전개된 나눔 문화의 양태와 사상적 근원과 불교계 나눔 단체들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계 나눔 문화는 복지활동과 자원봉사, 후원 활동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와 사찰, 종단, 그리고 각종 복지 시설과 후원단체 및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불교계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종단, 교구본사, 단위 사찰과 그곳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단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범불교로 확대시켜 운영하며 각 종단들이 참여하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희 봉은사 사회팀장은 ‘나눔문화 확산 모델을 통한 지역사찰의 나눔 기여 활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봉은사와 신흥사, 선운사의 사례를 각각 대도시 및 중·소도시형 복지사업 모델로 분석하고, △특징이 있는 나눔사업 기획 △지역과 도심사찰의 연계 △모금과 수익사업의 조화 △전문 인력과 시스템 개발 등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장,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12월 12일 후원의 밤

아프리카 농업학교건립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불자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주최,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과 공동주관으로 12월 12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후원의 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다.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름다운동행의 소개 영상과 다양한 축하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영상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가수 동물원, 크라잉넛, 이안의 콘서트가 진행되며, 가수 크라잉넛은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식도 가질 예정이다.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는 “특별생방송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배움을 갈구하는 아프리카 이웃들에게 학교를 세워주자는 따뜻한 자비심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12년 12월 5일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올해는 2회째 맞는 행사로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 장면.

BBS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 립을 위해 불자들이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장을 생방송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연말을 맞아 후원자들과 아름다운동행을 응원해주시는 불자들에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후원의 밤을 개최하게 됐다”며 “불교의 불모지인 아프리카에 세워지는 농업학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는 BBS 불교방송을 통해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밤 7시까지 10시간 특별 생방송이 전국적으로 방송된다.

이나은 기자

“후원자 여러분,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송년행사 마련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12월 2일 성균관 파티움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300여명을 모시고 송년모임 ‘좋은인연’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수 봉사자 및 후원자 표창, 복지관 동영상 상영, 대표어르신 감사인사, 내빈 축사 등이 1부 행사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진명 스님이 ‘나의 행복 찾기’란 주제로 강연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013년 한 해 동안 관심을 보여준 우수 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관 스님은 “복지관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분들의 관심 덕분이며,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약소하게 전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종로구 노인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시한부 3개월에서 3년 동안 키운 희망

생명나눔, 12월 환자 고석형 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은 12월 치료비지원 환자로 고석형(58 · 남)씨를 선정했다. 자식과 부인밖에 모르는 성실한 가장인 고석형 씨는 2011년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시한부 3개월 선고 받던 날 온 가족은 숨죽여 울었다.

외국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 유학 중이던 딸은 아버지의 치료비로 꿈을 접고 귀국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 중이고, 대학에 합격한 아들마저 진학을 포기하고 병원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 간병에 작은 옷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고씨는 매월 3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든다. 빚을 지는 것도 한계에 달했고, 현재 생계유지조차 어려워 공과금이 밀린 것은 물론이고 끼니를 때우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생명나눔



고석형(58 · 남)씨

이나은 기자

봉행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제11대 회장 광혜당 무문스님 취임 및
제10대 회장 벽담당 학명스님 이임식

귀의삼보하옵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제11대 회장 광혜당 무문스님 취임 및 제10대 회장 벽담당 학명스님 이임식’을 아래의 내용으로 봉행하오니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을
비롯한 대중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라며
향후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불기 **2557(2013)년 12월 18일** (수) 오후 4시
- 장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 문의 :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의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44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 **2013년 12월 22일 ~ 2014년 1월 25일**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별도 프로그램)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 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문의 :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교육프로그램**
① **건강회복** : 심신단련,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②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③ **심성정화** : 불교강의, 108배, 참선, 운력
④ **교양수업** : 국악, 다도, 원어민 영어회화, 화랑과 원효대사의 성지순례

1500년 전통사찰 · 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